



아동학대 방지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성남시 아동보호팀'과 성남시청 어린이집 원아들. 왼쪽부터 임규빈, 장유은, 노이준, 공지유 어린이



모든 아이들이 맑은 웃음을 띸 수 있게! 성남시 아동보호팀이 이를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성남시가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바로 '성남시 아동보호팀'입니다.
8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힘을 주고, 올바른 인식 확산과 예방에 노력합니다.
그렇게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을 띠 수 있게 먼저 살피겠습니다.

SEPTEMBER 09
Vol.314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14호 2021년 8월 25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 | | |
|-------|---|
| 페이스북 | facebook.com/seongnamdiary |
| 블로그 | seongnamdiary.com |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eongnamsi |
| 트위터 | twitter.com/seongnamcity |
| 유튜브 | youtube.com/user/sndiary |
| 틱톡 | tiktok.com/@seongnamsi |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아동학대, 우리가 맡는다

성남시 아동보호팀 8명의 어벤져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직원들. 왼쪽부터 김호현, 고경란, 원예진, 조혜미 주무관, 강수희 팀장, 이예영, 오은경, 박훈기 주무관

*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야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밤새 동분서주하다 아침에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람도 큽니다.”(박훈기 주무관)

“어린 형제가 방임돼 길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긴급히 시설에 입소시키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친인척 보호로 이관했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김호현 주무관)

“사춘기 자녀와 부모님 간 트러블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체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은경·원예진 주무관)

“저희가 부모를 처벌하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혜미 주무관)

“친부에 의한 성 학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같이 참여했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고경란 주무관)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 됐던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해 가정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잘 지내는 아동도 많지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어요. 지속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하는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이예영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동보호팀은 사회복지업무 27년 차 팀장을 비롯해 8명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강수희 팀장은 “아동보호팀은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자체에 이관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아동보호팀을 새로 구성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동보호팀에서는 아동학대발생 신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신고 즉시 2인 1조로 현장 출동하며, 아동학대 판단, 즉시 분리조치,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의 아동학대 건수는 381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3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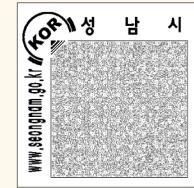
하반기에는 치료그룹 험 추가 개소,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방문 대면조사로 조기 발굴에도 힘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자,

경찰서,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짜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발굴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힘을 주고, 올바른 인식 확산과 예방, 조기발굴에 노력하는 아동보호팀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동이 살기좋은 우리 성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명의 어벤져스가 전하는 다짐이 듣는다.





알아 두세요! 성남의 아동을 위한 유익한 정보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부모의 걱정 덜어주는 아이 돌봄

초등학생 아침 틈새 돌봄



지난 7월 1일부터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13곳에서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틈새 돌봄을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 등 이른 시간에 출근하면 아이 혼자 집에 남겨 지거나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비스로 오전 7시 30분~9시 아이를 돌봐준다.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는 가까운 다함께 돌봄센터에 이용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프로그램**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 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놀이, 또래놀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등
- 운영시간** 학기 중 07:30~09:30/ 11:00~20:00, 방학 중 07:30~20:00
- 월 이용료** 10만 원 이내 ※ 어린이식당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센터명	정원	소재지	연락처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은행1동)	40	중원구 자례로57번길 1 (은행1동 2356번지)	735-6150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역푸르지오4단지)	20	수정구 위례광장로 36 (위례역푸르지오4단지)	753-5656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백현마을3단지)	40	분당구 동판교로 92 (백현마을3단지)	703-8885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판교동)	25	분당구 운중로 254(판교동)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층	070-4220-5727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단대동)	20	수정구 회양로506번길 21 (단대동) 단대동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736-3307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상대원3동)	30	중원구 박석로72번길 3 (상대원동)	742-6335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구미동)	40	분당구 무지개로 144 (구미동)	714-7670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3단지)	30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	723-7774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금광2동)	20	중원구 산성대로408번길 26-1(금광2동)	734-1377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하대원동)	30	중원구 원터로 34, 102동 1층	755-7942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고등마을)	40	수정구 고등로 57(고등동)	759-8817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수진2동)	23	수정구 제일로109번길 8-5	755-6150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수자인금광)	40	중원구 광명로 411, 3층 (금광2동)	070-7585-2335

성남시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팀 031-729-2866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 돌봄 사람이 없을 때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슬기로운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용기준 1회 2시간 이상

이용요금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506원~10,040원
(여간 및 휴일 이용 시 50% 추가) *국민행복카드 할인 후 이용



문의처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52-9327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여성가족부 성남시 경기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 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1회 2시간 이상 신청)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신청방법

- 가나다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정부지원)
 -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할인 및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가입 필요

이용요금(시간제기본형 기준,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형	소득기준	본인부담금(1시간)	
		A형 (2014. 1. 1. 이후 출생)	B형 (2013. 12. 31. 이전 출생)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365만7천 원)	1,506원	2,510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가구 585만1천 원)	4,016원	8,032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4인가구 731만4천 원)	8,534원	8,534원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10,040원	10,040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우리 아이 건강챙겨 주세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하나된 성남
시민이 사랑합니다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19. 4. 1. 이후 전입자는 그 날 기준 후 대상에 포함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치과의 보철·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의 치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연간 본인부당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신청기간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당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729-2365, 2364, 2363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연간 본인부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한다(단 미용,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과)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031-729-2365, 2364

경기도 초등 4·5학년생 치과주치의 사업

하나된 성남 시민이 사랑합니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검진으로 구강건강을 지키세요!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간

경기도 내 초등학교 4·5학년생 및
동 연령(만10~11세) 아동

장소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의료기관

비용

무료(개인 비용 없음)

서비스 제공 순서

치과 방문 전 학생 할 일!

덴티아이 앱 다운

로그인

문진표작성

치과 전화예약

치과방문

검진결과 통보서 확인

문의 수정구보건소 729-4047, 4046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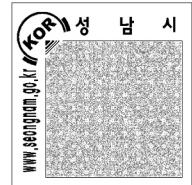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KDA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덴티아이)에 접속 후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고 치과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대상** 경기도 내 초등학교 4·5학년생 및 동 연령(만 10~11세) 아동
- 장소**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의료기관(덴티아이 앱 참고)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지원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729-4047, 4046



‘청년, 성남을 만나다’ 성남 청년주간(9.9~9.18) 운영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위주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성남시는 9월 18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2021년 성남 청년주간’을 성남시청 및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분산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청년을 위한 문화 조성과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한 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 성남을 만나다

9월 10일 성남시 첫 청년참여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응원 온라인 기념행사, ‘기후위기 대응, 우리의 역할과 과제’ 전문가포럼을 진행한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결정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 프로그램으로 ‘청년 아이디어톤대회’ 발표회, 청년지원센터 판교의 개관 100일 챌린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청년 창업팀에 대한 네트워크 ‘썸썸스페이스’ 네트워킹 등 5개 협력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청년공간과 함께 운영하는 성남청년 활동박람회로 청년지원센터 신흥역 청년마음건강 ‘청춘상담소’, ‘취미제작소’, 청년지원센터 판교역 문화예술 원데이클래스 ‘꼼지락 클래스’, ‘오늘은 같이 먹어요’, 청년예술창작소 가천대학교 협업프로젝트 시각 릴레이 전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수다 떠는 청년식당’ 등 다양한 청년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청년정책과 정년기획팀 031-729-8752

성남 청년주간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일정	내용	프로그램	일정	내용
청년정책과	9. 10(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	청소년 재단	9. 9(목)	썸썸스페이스 네트워킹
	9. 13(월)	청년 아이디어톤 발표회·시상식		9. 10(금)	청년프리인턴쉽 결과공유회
	9. 16(목)	청년의날 온라인 공감토크		9. 11(토)	청년 탐운홀 미팅
청년지원센터 (신흥역)	9. 10(금)~17(금)	청춘상담소		9. 15(수)	‘기후위기대응’ 전문가 포럼
	9. 14(화)	청년로드뷰		9. 1(수)~9. 30(목)	협업프로젝트 시각 릴레이 전시
	9. 15(수)	취미제작소		9. 14(화)	청년예술창작소로 모여라
청년지원센터 (판교역)	9. 13(월)~9. 16(목)	방구석 클래스		9. 16(목)	청년예술창작소로 모여라
	9. 9(목)~9. 18(토)	뮤지컬 상연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	9. 1~9. 18 (수·목)	수다 떠는 청년식당
	9. 11(토)~16(목)	꼼지락 클래스		9. 18(토)	수다 떠는 청년의 날
청년예술창작소	9. 11(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9. 14(화)	‘괜찮아 청년이야’			
	9. 17(금)	‘오늘은 같이 먹어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들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청춘상담소 활동가 ‘마음지기’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청년들은 무엇이든 꿈꾸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다양한 시작을 경험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청년세대의 마음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성남시청년지원센터(신흥) 청년이봄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청춘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춘상담소는 청년 마음지기(상담가) 양성과 ‘봄편지’, 문화기획 프로그램, 비건 재료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

며 이야기하는 ‘비건다이닝’ 등 네 가지 콘텐츠를 운영한다. 이 용신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봄편지’는 청년 전용 24시간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얼어붙은 청년들의 마음에 봄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주 동안 상담교육을 받고 양성된 또래 청년 마음지기가 봄편지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마음 건강회복을 위한 문화기획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운영한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5명의 마음지기가 양성돼 활동하고 있다.

9월 청년주간에는 마음지기가 기획한 프로그램 ‘당신의 마음에 일렁이는 잔물결 잔잔’과 ‘희망을 찾아요,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너, 나, 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춘상담소 활동가 마음지기를 만났다.



구본준(만 23세, 마음지기 1기)

군대에서 또래 상담병 상담활동을 할 정도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어 마음지기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라디오처럼 상담받는 문화기획 프로그램 ‘READY O’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재미있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무거운 사연을 접할 때는 그동안 받았던 상담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청년이봄의 ‘귀’가 돼 또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로 공감하고 싶습니다.



진지은(만 32세, 마음지기 2기)

직장생활을 하던 중 과로와 심한 업무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뒀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고 나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또래들과 연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지기가 됐습니다. 봄편지에서는 상담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또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꾸준히 연결돼 언제든 닿을 수 있는 또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다가와 주세요.



임승현(만 27세, 마음지기 2기)

심리상담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년으로 살아 보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세대라는 생각이 커져 청년활동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전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청년들을 위해 활용하고자 마음지기에 지원했습니다. 봄편지는 상담전문가와 친구 사이의 마음지기가, 고민이 있는 또래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정보도 제공해주며 같이 고민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땐 꼭 청춘상담소를 찾아주세요.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펜싱터미네이터 오상욱을 만나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

구본길(32), 김정환(37), 김준호(27)와 함께 이탈리아를 압도하고 펜싱 역사를 새롭게 쓴 어펜저스(어벤져스와 펜싱대표팀을 합해 만든 단어)의 막내이자 꽃미남 검객으로 유명한 성남시청 소속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4) 선수를 만났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후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실감하시나요? 요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많이들 찾아주셔서 조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축하연락도 많이 받았고, 특히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께 축하와 칭찬 전화를 많이 받아 더 뿌듯했습니다.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방송 등 다양한 곳에서 불러주셔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를 다시 앞두고 있어서 조금씩 훈련도 하고 있구요.

원래 몬스터라는 별명도 있었고, F4, 어펜저스 같아 이번에 생긴 별명도 있는데 오상욱 선수는 어떤 게 가장 맘에 드시나요?

제 개인 별명으로는 터미네이터라고 불러주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 저희 단체전 4명에 붙여주신 어펜저스라는 별명도 너무 맘에 듭니다. 초자연적인 파괴력을 가진 액션히어로이기에 그만큼 경기를 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펜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브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축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할까 펜싱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더울 때도 축구는 야외에서 계속 뛰어다녀야 하지만 펜싱은 더우면 실내 에어컨 밑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린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모교인 중학교 펜싱부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사브르여서 선택의 여지 없이 시작하게 됐지만, 배우면서 다리를 쭉 뻗는 동작 같은 것들이 너무 멋져 보였고, 빠르고 공격적이라 점점 새롭게 느껴지는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상욱 선수에게 성남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척 감사한 곳입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다 성남시청으로 오게 된 지 이제 3년 차가 돼 가는데, 선수로서의 제 가치를 많이 인정해주시고 장비나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녀 실업팀이 같이 있는 유일한 곳이라 펜싱팀 전체 분위기도 좋아서 잘 적응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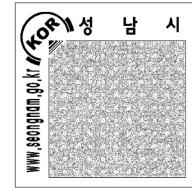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합하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겪어 본 사람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잘 알아서 지금도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같이 힘내고 노력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펜싱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펜싱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달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즐기면서 할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는 192cm의 훤칠한 키에 빼어난 순발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4년 넘게 준비해 온 올림픽을 넉 달 앞두고 코로나 판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근육마저 빠져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훈련을 다시 시작한 투지 강한 선수이기도 하다.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 선수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마음으로 응원한다. 우리나라 펜싱 보유국이다.

* 사브르 현대 펜싱 세 가지 종목 중 하나로, 기병들이 사용하던 무기에서 유래한 검 사브르를 사용한다. 팔과 머리를 포함한 상체가 공격 범위로 치르기 외 베기도 허용된다.



'성남 청년정책 가이드' 발간

한눈에 보는 성남시 청년정책

'청년희망도시 성남'

성남 청년정책 가이드



성남시는 2021년 6월 수립한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층 중심의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가이드'를 발간했다.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5대 정책분야 59개 중점추진과제를 청년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성해 시민 모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주요서비스→복지→청년희망도시 콘텐츠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성남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 신청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청년 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소득 청년

▣ 모집기간: 대상기구 50호 모집시까지

▣ 지원내용

- 대출보증: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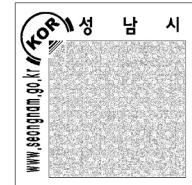
- 이자지원: 연 3% 이내(초과분은 본인 부담)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문의처: 청년정책과 729-8503, 농협 성남시지부 740-6644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째 맞는 성남시 의료관광산업의 대표 브랜드

2021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SMC) 9월 9~11일 온라인 개최



2021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9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공식 홈페이지(www.simtc.org)와 유튜브 채널(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콘퍼런스, 비즈니스상담회, 온라인 홍보관, 토크콘서트, 시민건강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국제의료관광저널(키스플라드), 연세대학교(진기남), 백신 실용화사업단(성백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최성희), (주)네스트스토리(이주일), 네이버(차동철), GE헬스케어(장광희)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산업 전문가 21명이 모여 코로나19가 가져온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분야의 지형 변화를 진단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9월 10일(금) 오후 7시 특별강좌에서는 인기 강사 김미경 대표가 '코로나19 시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강연'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한의사회 등 지역 의료기관과 단체의 전문의가 '내 몸 사용설명서-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 '고도비만과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법', '일상생활 면역력 높이기'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 건강강좌를 제공한다.

18개국 70개사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상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기업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과 통역을 제공해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과 관광산업팀 031-729-8616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9. 9(목)	9. 10(금)	9. 11(토)
개막 영상		주제 영상, 개회사, 축사	
온라인 홍보관		의료관광/헬스케어 참여기업 홍보	
국제콘퍼런스	의료/관광	헬스케어/제약바이오	통합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관광/헬스케어 비즈니스 상담회(킨스타워 7층)	
토크콘서트		'High Medi 성남'	
건강강좌	시민 건강강좌	특별강좌(19:00~20:30)	시민 건강강좌

*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 기준 시간으로 운영

성남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 발족

삼평동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계안 첫 자문회의 진행



01 성남시는 7월 29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이스포츠진흥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첫 회의를 했다. 02 성남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가 첫 자문회의 진행 중인 'e스포츠 전용 경기장' 투시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이스포츠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7월 2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에서 총 10명의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스포츠진흥위원회는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전문가 협력 체계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성남시의

중장기적인 e스포츠 진흥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성남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장영근 부시장(당연직)이 맡았다.

위원 9명은 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성남산업진흥원 본부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베리이스포츠 대표,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BI -

MOVING ON

「MOVING ON」은 사전적 의미의 '다음 단계로 이동'이라는 뜻처럼 한가지 이미지로 고정된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긍정의 무한 가치와 포용을 지닌 도시 성남을 상징합니다.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성남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발전을 도모할 인재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습니다.

MOVING 개척, 이동, 도전, 개방, 진취, 아주, 혁신, 연결 등의 다양한 의미 안에서 성남의 탄생 배경과 부합
ON 정주, 정착, 시작의 의미를 내포

아프리카 프릭스 대표,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다.

이날 위원회는 성남시가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인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계안에 관한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콘텐츠팀 031-729-8892

한가위, 전통시장에서 장 보기

알뜰하고 풍성하게… 네이버 동네시장서 배달도 가능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한 달 앞이다. 코로나19로 예전 같진 않지만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추천한다. 대목을 앞두고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도 풍성하게 차려져 있을 뿐 아니라 방역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살아있는 생활경제교육 시간이 될 것이다.

주부 이 모(여수동) 씨는 수정구 중앙시장 전가게 단골로 평소에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주차도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수의 손맛까지 가득해 식구들이 좋아한다. 바로 옆 현대시장 반찬가게까지

들르면 한 주의 식단은 거뜬하게 해결된다.

정자동 김 모 어르신은 모란전통기름시장을 자주 찾는다. 나물반찬을 좋아하는 식구들을 위해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등을 이곳에서 구입한다.

출근으로 전통시장 장보기가 힘든 직장인 최 모(수진동) 씨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네이버에서 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동네시장 장보기를 입력하면 모란시장, 단대전통시장, 상대원시장, 성호시장, 남한산성·은행시장 등을 찾을 수 있는데 먹거리, 채소, 반찬, 양념, 농산물 등을 배달시킬 수 있다. 배송 가능 지역은 각 전통시장 안내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최 모 씨는 흥어회 무침 400g과 양념게장 500g 그리고 식혜 2병을 담아 배달 주문을 했다. 주석 장보기도 네이버 전통시장에서 할 계획인가란 질문에 최씨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편하기는 하지만 주석 때는 명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모란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가위엔 알뜰하면서도 좀 더 풍성한 명절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는 어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 등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



중앙시장 강원반찬

성남의 전통시장 현황

시장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신흥시장	수정구 신흥동	수정로214번길 6
중양시장	수정구 태평동	수정로 109
현대시장	수정구 태평동	수정북로 18
모란(종합)시장	중원구 성남동	둔촌대로69번길 8
모란전통기름시장	중원구 성남동	둔촌대로83번길 7 등
모란시장(가축시장)	중원구 성남동	성남대로 1127 등
금광시장	중원구 금광동	산성대로426번길 5 등
단대전통시장	중원구 금광동	산성대로372번길 10
성남중앙지하상가	중원구 성남동	산성대로 244-4
성남남한산성시장	중원구 은행동	은이로8번길 6 등
상대원시장	중원구 상대원동	희망로344번길 6 등
은행시장	중원구 은행동	산성대로 526
하대원공설시장	중원구 하대원동	마지로 118 등
범한프리자시장	분당구 서현동	불정로376번길 37
미금현대벤처밸리시장	분당구 구미동	분당구 돌마로 80
청구문화시장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165번길 38
코코프리자시장	분당구 서현동	서현로201번길 20
금호행복시장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165번길 38
코끼리종합시장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166번길 7-6
현대시장	분당구 서현동	중앙공원로40번길 8
미래그린시장	분당구 서현동	불정로386번길 10
돌고래시장	분당구 수내동	내정로174번길 42
분당종합시장	분당구 수내동	돌마로366번길 42
야탑에이스코아시장	분당구 야탑동	야탑로 64
분당우성시장	분당구 서현동	중앙공원로40번길 42
현대프리자시장	분당구 수내동	돌마로 364
동신종합시장	분당구 수내동	돌마로 361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분당구 서현동	불정로376번길 31
모란민속5일장	중원구 성남동	4931번지
성호시장	중원구 성남동	2090번지

성남시 팝업뮤지엄 명칭 ‘알(EGG)’ 선정

박물관의 상징성과 의미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



성남시는 2025년 성남역사박물관 개관을 위한 팝업뮤지엄의 명칭을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알(영문표기: EGG)’로 선정했다. ‘알’은 성남역사 박물관 개관 후 교육동 명칭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팝업뮤지엄 명칭 ‘알’은 시민들이 지켜낸 성남제1공단 공원 부지에서 ‘성남의 역사문화가 알에서 깨어나 날개를 편다’는 의미다.

국립국어원은 박물관의 상징성과 의

미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순 우리말로 잘 표현했다는 의견을 냈다.

‘알’은 2022년 8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향후 성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 긍정적 상상력을 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창의적 공간이 마련된다.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내 위치한 ‘알’의 연면적은 2,915m²이며, 1층은 사람과 생각, 유물과 정보가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고, 2층은 성남의 역사문화에 대한 실험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교육실이 배치된다. 3층은 체험전시실과 다목적 공간, 4층은 공유카페 등 시민활동 지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팝업뮤지엄 ‘알’의 운영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올해 초 시민워킹그룹을 운영했다. 39명의 시민들이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을 기획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기획을 반영한 대상별 성남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끌어내는 가변적 열린공간을 콘셉으로 하는 인테리어 실시 설계를 현재 제안 공모 중이며 체험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 제안 공모도 9월부터 추진 예정이다.

성남시 ‘식중독 예방’ 위해 식품 위생관리 진단 평가 나서

9월 30일까지 562개소 음식점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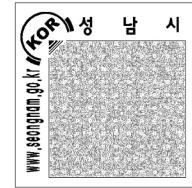


성남시는 여름철 분식(김밥)의 식중독 지속 발생으로 인한 식중독 취약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김밥 취급업소 및 분식, 대형음식점 등 총 562개소로 시청·구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개 팀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성남시는 먼저 해당업소를 방문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낮은 업소에 대해 재점검하고, 특히 김밥을 수거해 부적합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소의 시설 및 공정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종사자의 손, 칼·도마 등의 오염도 측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에 최근 식중독 사고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에는

- ①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 ②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항목을 설정해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검진
- ③ 채용 목적의 신체검사나 보건증 발급 등에 의한 기타검진으로 분류된다.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01 건강검진센터 단체사진 02 채혈 03 흉부촬영 04 구강검진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도부터 국가건강검진센터에서 국가건강검진을 해오고 있고 올 4월 12일 종합검진센터 개소를 계기로 6대 암 검진은 물론 직장검진과 채용 검진, 개인별 종합검진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종합검진의 경우 약 58종의 기본검진을 바탕으로 질환별로 척추 정밀검진, 뇌 정밀검진, 심폐 정밀검진이 있으며, 연령별로 2030 검진, 4050 검진, 5060 검진이 있다.

건강검진센터는 채혈실, 신체계측실, 청력검사실, 폐기능검사실, 스트레스 안정실, 심전도 동맥경화검사실, 구강검진실, 초음파실, 안압·안저검사실, MRI 검사실, CT 검사실, 흉부촬영실, 골밀도검사실, 유방촬영실, 내시경실, 내시경 회복실 등으로 구성돼 있고 별개로 탈의실 내에 화장실이 있어 검진받는 동안 수검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

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성남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초·중·고등학생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약 291명을 예정으로 공공의료사업팀과 협력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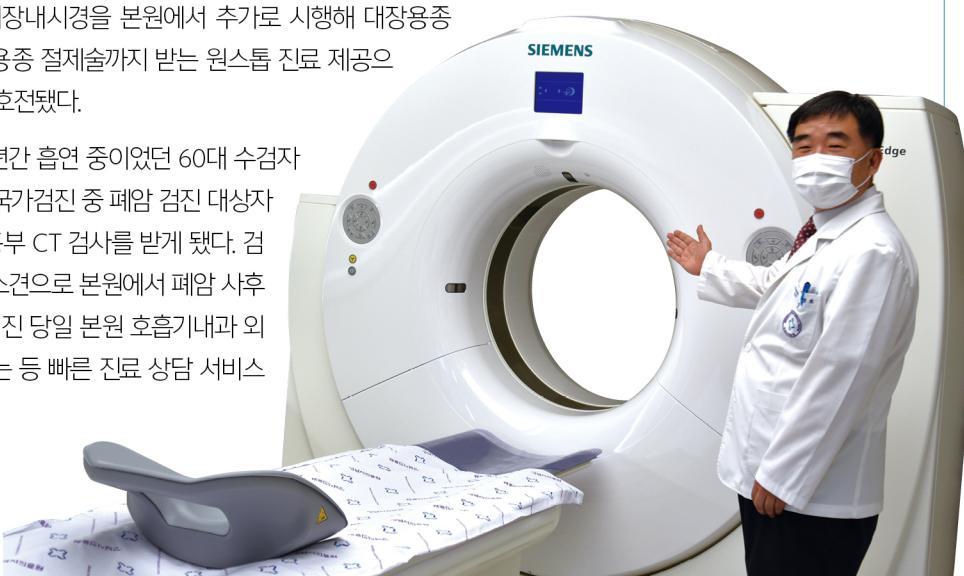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수검자들이 질병과 질환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과 금연, 절주,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한 국가검진센터! 국가검진에서 미비한 점까지 세밀하게 잡아주는 종합검진센터! 건강검진 성수기인 연말을 피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한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안전하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하영호 센터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설과 최첨단 장비로 시민들 편에서 다가가도록 직원들이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검진이 전문의들로 구성돼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검진자별로 개별검사 선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은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질병클리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각자에 맞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관계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검진사례 1 50대 남자 수검자는 국가검진 대장암 검진(분변잠혈검사) 대상자였다. 본원에 내원해 검진을 시행했고 검진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국가검진 2차 대장암 검진(대장내시경) 대상자로 추가 확인됐다. 그 후 국가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본원에서 추가로 시행해 대장용종이 발견됐고, 바로 용종 절제술까지 받는 원스톱 진료 제공으로 더 큰 악화 없이 호전됐다.

#검진사례 2 35년간 흡연 중이었던 60대 수검자는 국가검진 중 폐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돼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게 됐다.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으로 본원에서 폐암 사후 상담을 진행했고, 검진 당일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진료까지 연계하는 등 빠른 진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차별화

MRI, CT 등은 워낙 고가의 장비여서 외래환자 검진과 건강검진센터 검진을 같이 사용하는 병원이 많다.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외래환자들의 검진에 사용하는 장비와 별개로 건강검진센터 내에 고가의 장비를 갖춰 수검자의 편의를 최대화했다.

- CT의 주요 구성인 발생기와 획득 장치는 현재 타 병원에서 운영되는 CT 장비 중 가장 빠른 촬영속도를 보여주며, 2세대 영상 재구성 기법을 적용해 방사선 피폭량은 낮추고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
- 최신 MRI는 검사 중 발생하는 장비 소음을 현격히 줄여 보다 안정감 있는 검사 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비 내부의 검사 공간도 기존보다 확장해 검사 시 수검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 디지털 유방촬영기는 유방의 압박을 적게 해 통증을 최대한 줄인 최신 기계이며, 방사선실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수검자들을 위해 누워서도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장치를 설치했다.
- 구강검진실이 센터 내에 있어 치과검진을 받는 수검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했다.
-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수치로 보여주는 골밀도 측정기도 최신기종으로 갖추고 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성남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한결 수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건강검진을 받기 전 금식으로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검사 당일 아침에는 물도 금지다. 대신 검진 후에는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빈속을 달랠는 것이 좋다(대장암 분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은 금식과 무관하다).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사 전 미리 의사와 상의해 복용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혈압약, 심장약은 아침 일찍 소량의 물로 복용한다. 당뇨약은 검진으로 공복 상태 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전날 저녁, 당일 아침에는 복용하지 않는다.
- 건강검진 당일은 검진 시 탈의해야 하니 가벼운 복장과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센터의 특장점

- CT, MRI 등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하루 검진 인원을 제한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검진
- 진료를 위해 내원한 외래환자와 검진 중인 수검자가 별개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동선의 혼선이 없고, 검진 시 발견되는 질병은 외래와 직접 연계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검진
- 검진자의 RFID 인식 팔찌를 통해 검사항목의 누락 없는 효율적 검진



인터뷰어가 느낀 성남, 성남 사람들

“시민이 살아있음을 느껴… 성남이 부럽습니다”

기고 김종배(글랜스미디어 편집이사, 전 연합뉴스 기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인터뷰집 건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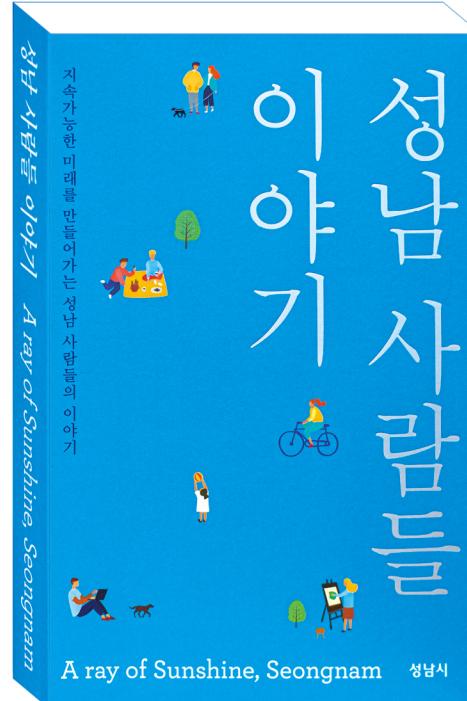
오래 알고 지내온 출판사 대표가 말꼬리를 흐렸다. 직감적으로 뭔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족’이 발동했다.

성남시가 내후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홍보물 발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대표는 성남 시민 50명을 인터뷰해서 진솔하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도심과 분당, 판교 등 성남의 세 지역 특성을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하나의 책자 안에 담아낸다면 그 자체로 성남의 정체성, 또 성남시가 지향해야 할 여러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잠시 살펴보니 성남시 발전사는 대한민국의 축약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현대사가 걸어온 여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청계천 판자촌 철거에 따른 아주 정책으로 조성된 원도심, 개발 시대의 서울 인구 아주 정책에 따른 신도시 분당 조성, 나이가 혁신 벤처 기업들의 요람이 되고 있는 판교에 이르기까지 영락 없는 ‘축소 모델’이다.

“시민 각자의 삶을 개성 있게 풀어내면 그게 모여서 성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도 다른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거고요. 인터뷰 대상 섭외를 도와드리는 일 말고는 인터뷰와 글 구성 등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라는 말에 길게 말할 것 없이 수락했다. 17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통상의 기사 작법, 객관적인 ‘팩트(facts)’ 위주로 쓰는 글의 한계를 절감해온 터였다. 인터뷰 양식은 그런 면에서 팩트와 의식 너머의 주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양식이다. 질문을 통해 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유도가 매력적이며, 묻고 답한 내용 자체가 ‘팩트’아니 자의성 부담도 자동적으로 덜 수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 10일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된 분이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하는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김은영 대표다. 김 대표와 부군인 이돈순 작가는 지역성을 살리는 문화적 실천을 공공미술이라는 형태로 구현하는 분들이다. 이들의 대표작은 ‘에코밸리커튼(Echovalley Curtain)’.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예술가, 미술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만든 그림을



•••
성남시 발전사는 대한민국의 축약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현대사가 걸어온 여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청계천 판자촌 철거에 따른 아주 정책으로 조성된 원도심, 개발 시대의 서울 인구 아주 정책에 따른 신도시 분당 조성, 나이가 혁신 벤처 기업들의 요람이 되고 있는 판교에 이르기까지 영락 없는 ‘축소 모델’이다.

모은 이미지 장막을, 원도심 골목길에 내리쬐는 햇볕을 차단하는 커튼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공공미술은 어쩌면 우리 일상과 별 관련이 없는 예술을 우리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기획과 실천의 주체가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일회성, 전시성으로 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성남 원도심 토박이인 이 작가와 김 대표는 그 점에서 진정성을 갖고 진지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부부는 태평동 곳곳의 반지하, 옥탑방을 두루 경험했다고 했다. 중국 유학 중인 딸 또한 공부를 마치면 블록스 활동에 동참한다고 하니, 더 이상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출발점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흥분을 느꼈다. 아마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전해졌으리라 감히 생각해본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 공보실로부터 여러 차례 재미있는 인터뷰였다는 반응을 전해 들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나 스스로도 진지하게 임했지만, 모든 분들이 성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성남에 연고가 없다. 하지만 스며든다고 해야 할까? 한 분 한 분을 인터뷰하면서, 원도심과 분당, 판교 곳곳을 찾았더니면서 매번 신선한 발견에 즐겁고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었다.

“서울보다 살기 좋은 곳.” 인터뷰집 말미에 실은 좌담회에 함께한 성남시민들은 자부심, 자연스러움, 당연함이 가득 묻어난 톤으로 합창하듯 말했다. 나는 서울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심경이 됐다. 인터뷰 진행 전이었다면 솔직히 질투심이나 반발심이 더 앞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성남시민만큼이나 나는 성남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시민’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내 주변엔 이웃이 없다. 전통적 의미의 한국사회 공동체는 해체되고 급속도로 도시 공동체로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 사회의 상호 부조,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의 긍정적 가치를 상당 부분 잃었다. 옮겨 심은 나무가 새 토양에 적응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토양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잔뿌리가 자라나 환경과 조화 혹은 동화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활동가 이화연, 양재연 님을 비롯, 주부 이병오, 소현숙, 서지영 님 등은 모두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힘을 모으는 분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성남’은 행정구역상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성남이 보여줄 미래상에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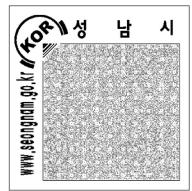
성남시는 홍보브로셔 『성남 사람들 이야기』를 최근 발행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성남시민 50명에 게 각 연령대가 생각하는 ‘성남다움’에 대해 묻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성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 실었다. 성남시민 3인과 함께한 방담 ‘성남다움은 무엇?’을 비롯해 화보로 보는 성남, 성남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다. 홍보브로셔(국판, 264P)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다.

성남 사람들 이야기

- 한경숙 탄천초 수석교사
- 김원근 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 박규태 운중고 1학년
- 양재연 마을공동체 시민활동가
- 이길여 가천대 총장
- 안현주 청소연구소 대표
- 박민제 중앙일보 판교팀 기자
- 장현영 NC 상무

- 최현석 FNS홀딩스 대표
- 김수련·주장현 청년 소방관
- 김하종 안나의집 신부
-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 이기행 성남시 주무관(기행집 출간)
- 강민호 작가
- 김성대 예비역 대령(비북스 대표)
- 소현숙 주부
- 금난새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 강호연 독립운동가 웹툰 참여 작가

-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김은영 대표·이돈순 작가 부부
- 이화연 시민활동가
- 배금용 나전칠기 장인
- 서지영 열정적인 엄마
- 오홍대 슈퍼마켓 사장
- 이병오 농부의아내
- 손성립 국장, 공무원 40년
- 오해봉 8·10 성남민권운동 참여자
- 김남일 성남FC 감독



01



02



03

도서관이 더 좋아 라이브러리 티티섬

함께 만드는, 규정하지 않는,
경험과 표현의 공간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사진 포토그래퍼 김동규



04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고 한다. 8월 31일 (재)도서문화재단씨앗(seeart)은 청소년 전용공간을 갖춘 청소년 중심 공공도서관 '라이브러리 티티섬(Tsome)'을 개관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알아가며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지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드물다. 씨앗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공의 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도서관이 청소년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티티섬을 기획했다.

티티섬 컬렉션은 청소년들이 경험을 넓혀 관심사를 찾고 키워갈 수 있도록 책뿐만 아니라, 영상, 장비·기기, 재료·작업물, 온라인 자료, 사람·강연 등이 기획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혼합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책은 티티섬 곳곳에 스미듯 비치돼 어디서나 마주친다. 상상한 것을 만들다가도 필요하면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책을 펼칠 수 있다.

티티섬 공간은 테마 존(Zone)으로 구성하고 존 안의 공간은 쓰임새를 규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9~12층 중 10층 일부와 11층의 청소년 전용 존은 청소년들이 '해야 한다'보다는 '하고 싶다'에 집중해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다. 10층에는 다양한 재료와 장비로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 보는 '티티랩', 낙서와 페인트칠이 가능한 '더티랩',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티팟', 한 발 한 발 뛴나는 '티티비티(클라이밍존)'와 모두의 부엌을 조성했다. '더티랩'은 개관 전부터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11층은 트윈과 틴의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트윈(tween, 12~16세) 존과 틴(teen, 17~19세) 존이 있다. 트윈 존은 기대서 든 누워서든 맘껏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틴 존은 책을 중심으로 따로 또는 같이 독서나 공부, 활동이 가능하다. 캠핑을 주제로 꾸민 공유공간은 캠핑의자, 해먹, 빙백 등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티티섬을 개관 전 미리 경험한 베타테스

터들은 낯선 만남인데도 이 공유공간에서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 모습은 티티섬 운영

자들에게도 특별했다.

9층은 모임, 강연, 공연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라운지, 흘, 카페,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작품을 전시·판매할 상점, 일부 작품을 기르는 텃밭으로 구성됐다. 12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가와 예약 사용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이 있다.

티티섬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근 청소년들과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와 도서관 탐방 등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티티섬은 청소년들이 건축가, 운영자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했고,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이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운영자들과 신뢰도 형성됐다.

티티섬 프로그램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정한다'는 티티섬의 매니페스토와 연결되는 패시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티티섬은 단순히 의견 반영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제안게시판을 운영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모집할 계획이다.

베타테스터들은 '가장 좋았던 건 사람이다' '다른 연령대와 만날 수 있는 것, 운영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았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티티섬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콘텐츠를 발견하고 서로 제안하며 탐구하는,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면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할 것이다.

INFORMATION

라이브러리 티티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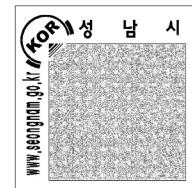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20, 9~12층(성남동, 대연빌딩)

031-753-1219, www.ttsome.org/ @ttsome.kr

오후 1시~오후 9시(월·화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관)

01 트윈존 02 틴존 03 라이브러리 흘 04 트윈존
05 티티랩 06 수돗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과 경험의 장, 책수수

책을 마중물로 자아를 찾고 세상을 열어가는 청년들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청년청소년협동조합 두리상은 1년 넘게 준비한 동네 책방 '책수수'를 7월 말 정식 오픈했다. 서가는 운영진이 직접 읽은 책을 중심으로 채우고 주민들이 빌려갈 수 있는 책과 청년 책방을 응원하며 직접 쓴 책을 보내준 작가의 작은 문고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만드는 굿즈, 수공예 작품과 공방, 노래·랩 연습실은 책방에 재미를 더하고, 운영진이 손수 담근 과일청 음료는 더위에 지친 기분을 달랜다. 넓은 대여 공간은 다양한 모임과 이벤트가 가능하다.

책수수 운영진은 청소년 시절부터 마을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교육, 복지, 생태, 성장을 주제로 책을 고른다. 먼저 각자 읽은 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서가에 꽂을 책을 선정한다. 추천하는 책은 직접 소개글을 쓴다.

'오늘도 고마워, 엄마! 오롯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엄마들에게... 딸과 엄마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 같은 책'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 줄 책'

이렇게 쓴 글을 보고 책을 사거나 관심을 보이는 건 공감의 표시. 운영진들은 처음과 달리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는다. 주문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책은 책방에서 성장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내려 한다. 책수수 청년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함께여는 청소년학교는 청소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때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양한 실험과 작업의 장을 만들었다. 책수수 청년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취약한 것에 도전해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책방을 제안했다. 왜 책방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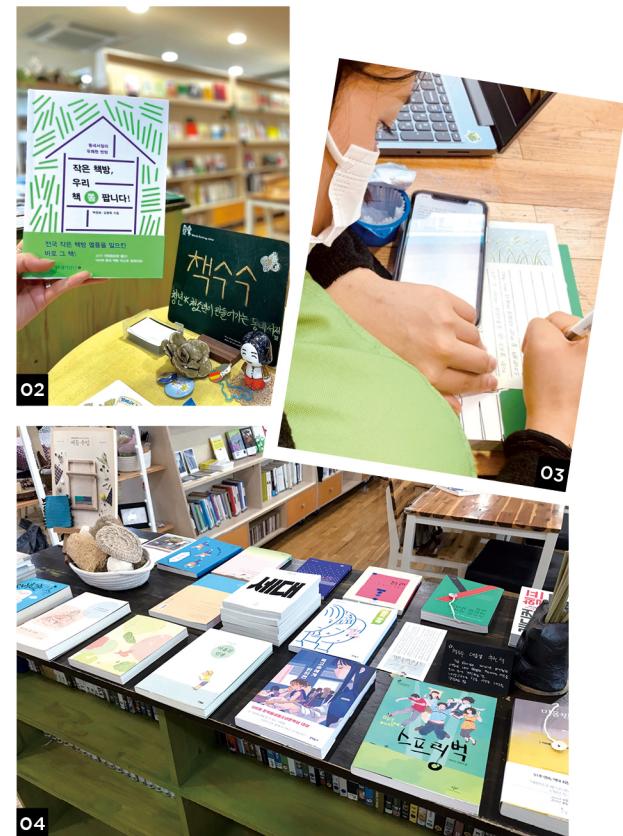
책수수 청년들은 청소년기부터 많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또래는 물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런 힘도 키웠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태도를 익히려면 사회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힘이 필요했다.

청년들은 스스로 단단해지고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우리도 읽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남에게 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책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읽고 설득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

목표는 청년청소년협동조합(두리상)을 설립해 서점을 창업하는 것! 과제는 책과 친해지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과 활동을 스스로 또는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기, 미래를 자립적으로 설계하는 다양한 실험과 상상의 배움의 장 만들기. 책 읽기부터 시작해 서점학교와 워크숍(서점탐방) 진행, 경기서점학교 수료, 협동조합 설립, 공간구성,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1년여를 준비해 드디어 책수수를 열었다. 책수수 매니저이자 두리상 이사장인 손현진 씨는 "모든 과정이 힘들었어요"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느끼는 변화가 다음 과정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를 불러왔다.

책수수 청년들에게 손님이 찾아오고 책을 산다는 것은 지지와 응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지와 응원 속에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고 즐거움도 느낀다.

정규진 매니저는 책수수라는 이름을 "책을 주고받는 공간, 서점과 손님이 옥수수 알갱이처럼 서로 의지해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



았어요. 그리고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는 수수가 우리와 닮았어요"라고 설명한다.

책수수 청년들은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글쓰기 강좌를 듣고 있다. 책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을 글로 표현하며 자아를 찾고 다지는 시간도 될 것이다. 취재 마지막으로 손현진 매니저는 개성 넘치는 많은 책방들을 알리고 싶다며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백창화, 김병록 지음)를 추천했다. 많은 북리버들로 하여금 전국 책방탐방을 펼치게 했던 책이다.

두리상은 올해 초 삼성꿈장학재단의 공모에 선정돼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두리상 조합원들로 구성된 '로다T'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8월 초부터 수련관 썸썸 스페이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길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수한 열정이 외롭지 않고 더 빛나기를,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란다.

INFORMATION

책수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1, 3층 301호(성남동, 인성빌딩)

031-722-0223

오전 11시~오후 9시(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01 책수수 내부 02 책수수가 추천하는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03 소개글을 쓰고 있는 운영진 04 책수수가 고른 책들

05 책수수 운영진 06 협동조합 공부 중





NEWS 01

시청공원에 도내 첫 ‘공공형 마을 정원’ 조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함께 누리는 힐링 공간”



성남시는 시청공원에 도내 첫 공공형 마을 정원인 ‘모두의 정원’을 조성했다. 모두의 정원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함께 누리는 힐링 공간이다. 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공공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조성 추진했다.

성남시청공원(전체 12만4,780m²) 내에 3천m²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2016년 시청공원에서 열린 경기정원박람회 때 조성한 전시정원 작품 29개 중 노후한 5개 정원을 하나의 정원으로 묶어 새롭게 디자인했다.

정원은 크게 체험공간과 놀이공간으로 나뉜다.

체험공간엔 텃밭 상자 5개를 새로 설치했다. 기존 ‘엄마의 휴식’ 정원작품에 있는 밥솥과 주걱 조형물 주변에 설치해 어린이들이 텃밭을 체험하면서 밭상 위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블루베리, 앙두나무, 살구나무 등 열매 나

무와 향기 나는 허브를 심어 먹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다.

놀이공간은 너른 잔디마당 안에 등지형의 대나무 울타리, 앉음돌, 통나무 의자, 디자인 벤치, 동물 조형물 등을 배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쉴 수 있게 꾸며 놨다.

이와 함께 정원식물 48종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과 표찰을 달고, 신구대식물원이 지원한 28개 라일락 품종을 심어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정원 초입부에 있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오는 10 월 개관 예정)와 연계해 정원에서 텃밭 가꾸기, 생태교육·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녹지과 조경팀 031-729-4312

NEWS 02

수정지역 주택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3호 개소

신흥1·수진1동 주민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는 센터 지하 1층에 64m² 규모로 마련됐다.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행복마을 지킴이 6명과 사무원 1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등 지역주민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사업도 발굴·시행한다.

앞서 개소한 은행2동과 태평4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방용 칼 갈이 서비스, 우산 수리 서비스 등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에게 아파트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031-729-2313

NEWS 03

2021년 지역일자리 사업 320명 모집

8월 30일~9월 5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성남시는 저소득, 실업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고용·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320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8월 30일부터 9월 5 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15일까지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1년 지역일자리 사업은 10월 18일부터 12월 31까지 75일

간 추진된다.

참여자는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8개 사업장에서 방역 관련 업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만 18~64세는 1일 5시간,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을 근로하고 시간당 8,720원 임금과 1일 5천 원 부대경비를 받으며, 연령에 따른 4대 의무보험에 가입된다.

고용노동과 공공일자리팀 031-729-2726~7

알아두면 좋아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2분기 주택, 토지
- 납부기간 9월 16~30일
- 편리한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 텍스 www.wetax.go.kr),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전화(ARS: 031-729-3650)

수정구 세무과 031-729-5160~4

중원구 세무과 031-729-6160~3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60~3, 7480~748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모집사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0개
※ 자세한 사업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검색 참조
- 모집기간 9월 1~10일(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
- 신청권자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업별 해당 서류(진단서 등) ※ 단, 소득에 이의제기 있을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기타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는 2020년 12월 9일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비싸게 팔고자 하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단계 방식 토지거래 등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지분 거래다.

성남시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신고자로부터 피해신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면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요청 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제출 예정이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5131

중원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6132

분당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713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eong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400가구

-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9. 1(수) 00:00 ~ 9. 11(토) 23:59 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9월 장난감도서관 회원모집)
- 신청지점 금광점, 분당구청점, 수정점, 양지점, 중원점, 태평점, 위례점
- 대여시작일 9. 23(목)

아리-랑 놀이프로그램

- 대상 2015년~2018년생 자녀를 둔 성남시 유아가정
- 내용 흥콕 놀이키트를 이용해 가정별 다양한 놀이 진행(친구들의 놀이 모방 및 아리선생님의 언어적 지원을 통한 놀이 확장)

	조물조물 빵가루놀이	말랑말랑 곤약놀이
신청 기간	8월 25일(수) 00:00 ~ 8월 26일(목) 23:59	9월 1일(수) 00:00 ~ 9월 2일(목) 23:59
놀이 일시	9월 8일(수)/9월 9일(목) 16:30~17:00	9월 15일(수)/9월 16일(목) 16:30~17:00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신청자 중 추첨 통해 참여 가정 선정(홈페이지 → 서비스예약 → 부모교육·행사 → 아리-랑 놀이)
- 이용방법 추첨에 선정된 가정에 놀이키트 택배 배송 → Zoom 아이디·비밀번호 전송 → ZOOM 입장 → 프로그램 진행

방구석 콘서트- 호랑이와 곶감(국악동화)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신청일 9. 6(월) 00:00 ~ 9. 9(목) 23:59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맞벌이가정 가사돌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7. 1(목) ~ 10. 25(월) ※ 상시접수
- 참여대상 현재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가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①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법정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우선 선정
※ 법정 한부모 및 다자녀가구 우선 선정
 - ② 자녀 모두 16세 이하(중3 이하)인 가정
 - ③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맞벌이부부 합산)

- 지원가구 총 90가구 ※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7. 1(목) ~ 11. 30(화)

※ 1가구당 1개월, 월 4회 지원(1회 3시간 30분~4시간)

- 지원내용 '청소년연구소'와 연계하여 가정 내 생활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이용료 소득 및 주거면적에 따라 10~20% 자기부담금 발생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family.go.kr) 내 공고문 확인

공동육아나눔터 놀이 공간 이용

- 이용시간 월~금요일 10:00~17:00 예약제 운영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0:00~11:30, 13:00~14:30, 15:00~16:30
- 이용대상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031-721-1640(내선4번)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예약 → 부모교육·행사 → 9월 방구석콘서트)
- 신청방법 9. 10(금) 10:00 ~ 9. 17(금) 10:00 홈페이지 → 서비스예약 → 온라인교육(공연) 페이지

아이사랑놀이터 흥콕 놀이키트

- 대상 성남시 영유아 가정
- 내용 놀이영상을 참고해 가정으로 배송된 놀이키트로 활동 진행 및 이용후기 작성
- 신청기간 1차 9. 7(화) 00:00~23:59/
2차 9. 28(화) 00:00~23:59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신청자 중 추첨 통해 참여 가정 선정) → 서비스예약 → 부모교육·행사 → 흥콕놀이

크린토이

- 내용 무료로 가정 내 장난감을 세척 소독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일 9. 1(수) 00:00 ~ 마감 시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 → 9월 크린토이 안내)
- 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신청 → 세척 장난감 사진 및 신청서 메일발송 → 신청일 장난감 무인 접수 → 세척 후 수거일시 문자 알림 → 세척된 장난감 수거
- 세척가능 장난감 종류 고온스팀청소 가능한 장난감 또는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플라스틱종류 장난감
- 운영지점 및 연락처 양지아이사랑놀이터 031-736-1640
태평아이사랑놀이터 031-753-1640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www.family.go.kr

(부모·자녀 동반입실)

-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 내부 공동육아나눔터
- 내용 부모와 자녀가 내방해 장난감 및 도서 이용
(※ 1가족만 입실 가능)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 (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자녀양육상담실
일정	전화 및 사이버상담만 가능	사이버상담만 가능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종지능검사 등
신청	월~금요일 09:00~18:00(전화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비양육자부모-자녀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8. 16(월) ~ 9. 7(화) 선착순 모집
- 참여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 자녀와 비양육자 부모 총 5쌍
- 일시 9. 11(토) 10:00~12:00
- 이용료 무료
- 내용 비양육자부모-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미술테라피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family.go.kr) 내 공고문 확인
- 문의 센터 건강가정지원팀 031-755-9327

수정도서관

2021 지역사회 친화 프로그램

미래는 마을로 온다



• 운영기간 2021. 9. 2(목) ~ 9. 9(목)

• 대상 성남시민

• 방법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

• 접수 8. 10(화)부터 성남시 평생학습 플랫폼 '배움숲'에서 접수(회원가입 필수)

프로그램	일시	내용	강사
특강	천천히 재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9. 2(목) 19:00~21:00	개발의 시대에서 재생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의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 등 도시가 초록색이 될 수 있나요? (환경친화적 마을 만들기)
	9. 9(목) 19:00~21:00		지구 친화적 마을과 삶, 공생형 마을재생 사례 및 국내외 주민참여형 도시 소개 장준호(안양대학교 도시공학 교수) ※ 저서:『천천히 재생』, 『도시의 발견』 등

수정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 031-724-0629, https://www.snlib.go.kr/sj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입영 예정자(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수) ~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
(※ 입영 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 통지서
 - * 성남사랑카드(농협) 지참: 핸드폰 미사용, 타인명의 또는 2G폰 사용 시
- 자금내용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1회)
- 자금방식 성남사랑상품권 앱(chak) 또는 성남사랑카드(농협)

성남시 재난안전관 031-729-357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2021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하는

제2회

성남여성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기간

21.7.19(월) ~
21.9.10(금) 까지

참가 대상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 예비여성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 창업기업

* 기창업자의 경우 1.8. 7. 10. 이후에 창업한 여성기업이어야 함.

신청 분야

일반부문: 자유주제

친환경 부문: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그린 에너지

대회 일정

접수기간 21. 7. 19.(월) ~ 9. 10.(금) 17시까지

예선 심사 및 결과 2021. 9. 16.(목) ~ 9. 17.(금)

본선진출자 멘토링 2021. 9. 23.(목) ~ 9. 27.(월)

본선 발표심사 2021. 9. 30.(목)

경진대회 시상식 2021. 10월 초

수상 혜택

수상팀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권 제공

입주 후 평가우수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문의

대회 운영사무국 ☎ 02-360-4549
✉ event@all-con.co.kr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 031-729-2660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성호시장 노점에서 채소 장사로 광주대단지 시절을 이겨낸 어머니 “어머니들이 돈을 벌기에 제일 쉬운 게 장사였어요”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01



02



03

01 광주대단지 시절 사진

02 광주대단지 시절 성호시장

03 성호시장 용이네 과일가게
안종숙 어르신

“노점이나 행상은 밀천도 들지 않으니
형편이 어려운 엄마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다라이(고무대야)를 이고 다니며 행상을 하거나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했지, 나 또한 그랬고.”

“돈을 벌어야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연필이랑 공책도
사줄 수 있으니 어찌겠어요.”

광주대단지 시절 서울 구로동에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온 안종숙(74) 어르신 가족의 성남살이는 시고모 댁 더부살이로 시작됐다. 사람 좋기로 소문은 났지만 경제력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 다섯 살 된 작은 아이를 시고모께 맡기고 성호시장 앞 단대천 뚝방에 자리를 잡고 채소를 펼쳤다. 하루 장사를 하면 단돈 몇 천 원이라도 벌 수 있으니 두 아이 배곯지 않을 수 있고, 학용품도 사줄 수 있으니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엄마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힐 생각에 장사만 잘되면 더위도 덥지 않았고 추위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시 성호시장 옆으로는 도매시장이 있었고, 뒤로는 뒷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노점 행상을 하는 어머니들 대부분은 그곳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단대천 뚝방이나 일반 점포 처마 밑에서 장사를 했다. 단대천 뚝방에는 채소, 과일, 의류, 신발, 포장마차에선 어묵, 튀김, 곤달걀 등 온갖 물건이 판매되고, 성호시장을 찾는 사람만큼 장사꾼도 많았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세월이었고, 자식들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70년대 후반인가? 단대천 뚝방에 판자로 지어진 건물 점포가 길게 늘어서 지어졌어요. 비록 건물이긴 하지 만 노점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게 됐지.”

김장철이면 성호시장엔 진풍경이 펼쳐졌다. 트럭 한가득 실려 온 배추, 번호표를 단 리어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주문받은 배추를 실어 나르기에 바빴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시절이니 배추 100포기, 150포기 김장은 기본이었다. 육체적으로는 김장철이 가장 힘들지만, 장사가 잘되니 정신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고생하며 살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장사해서 자식 둘 먹이고 입히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아주 잘 산 거 아닌가.”

대부분 못 입고 못 먹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배곯지 않게끔 키웠다고 한다. “낮시간을 장사에 쏟았다면 밤시간은 집안 살림에 아이들 건사까지, 녹초가 되는 줄도 모르고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며 “자식 둘을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하는 안종숙 어머니다.

“어디 가든 적응하기 나름이지만 당시의 성남은 없는 사람들이 살기엔 좋은 도시였어요.”

처음 들어본 광주대단지 시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다. 이유를 물으니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인들의 힘듦이 광주대단지 시절의 고단함을 능가한다”고. 채소 장사로부터 이어온 용이네 과일가게의 한산함을 느끼며, 코로나와 함께 어머니의 힘듦이 싹 물러가길 바라본다.



생활법률
Q&A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판례

Q. A는 실명을 알 수 없는 B로부터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B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 업체가 아니어서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일까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 위반을 이유로 A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B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본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위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변유진 변호사 031-729-2493





“여름도 무사히 지났고, 겨울엔 따뜻할 거라 기대해요”

아파트 경비실과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현장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01 분당구 분당동 샷별마을 라이프 아파트 02 에어컨을 켜는 샷별 라이프 아파트 경비원 배상호 씨

03 수정구 태평동 신세계 쉐센 아파트 04 신세계 쉐센 아파트 임경택 씨

한여름 낮 짱짱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는 사실 일은커녕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벼겁게 느껴진다. 매년 심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은 이미 필수재로 변한 지 오래인데도 이조차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사방이 꽈 막힌 좁은 공간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로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정구 태평동 신세계 쉐센 아파트(182세대 거주)의 선미옥 관리소장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강영근)에서 추진했어요. 경비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보조금이 없다면 입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덕분에 경비실과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라며 고마워했다. 임경택 경비원도 “굉장히 좋지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로는 더위를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찜통에 앉아있는 것 같았지요.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고, 겨울에는 난방기 덕분에 따뜻할 거라 기대해요. 정말 좋습니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분당구 샷별 라이프 아파트(796세대 거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제성)에서도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동참했다. 메인 초소와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각 경비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했다. 5년째 근무 중인 경비반장 안명주 씨와 배상호 조수철 경비원은 “아파트 주변을 살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땀으로 옷이 다 젖어있는데 에어컨을 켜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 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는 사실 별거 없다.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 이게 전부 아닐까.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응원한다.



생태 이야기

사냥한 먹이를 나뭇가지에 꽂아두는 때까치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사진제공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오영조

성남의 탄천을 산책하다 보면 나뭇가지, 전선 등에 앓아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자그마한 새가 있다. 참새인가?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때까치다. 18~20cm 크기의 때까치는 참새목 때까치과의 육식성 새로 까치와는 거리가 있는 별개의 종이다.

때까치는 성대모사의 달인이다. 때까치는 주로 가을에 들을 수 있는 “때때때 때…” 하고 우는 울음소리가 인상적인데 번식기에는 다른 새의 지저귐을 흉내내는 습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한다.

때까치는 동물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작고 약해 보이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오로지 육식만 한다. 라이트급 체구지만 사냥 솜씨로 치면 동급 최강이다. 맹금류처럼 부리가 휘어있는 때까치는 땅 위의 먹이를 찾기 위해 자표면 가까이 날다가 급상승해 나무 위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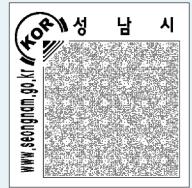
그러다가 먹이를 잡으면 나뭇가지의 작은 가지나 가시에 먹이를 꽂아두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먹이꼬치라 한다. 때까치가 육식을 하지만 맹금류처럼 다리나 부리의 힘이 약해 먹이를 끊기 힘들어서 먹이를 나뭇가지에 고정시키고 뜯어먹는 습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독특한 이런 습성 때문에 butcher bird(도살조·학살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나중을 위한 먹이 저장으로 보일 수도 있는 때까치의 이런 행동은 먹이 저장보다 영역 과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진 야산에서 미리처럼 바짝 마른 동물사체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때까치가 만들어 둔 섬뜩한 먹이꼬치는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독특한 습성으로 악명 높은 때까치는 때때로 다른 새들의 알을 거두는 자비로운 보모가 되기도 한다. 새가 둥지를 짓지 않고 자신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산란해 대신 품고 키우게 하는 습성을 ‘탁란’이라고 한다. 탁란으로 익히 알려진 새는 바로 빼꾸기인데 때까치도 종종 빼꾸기의 보모새 노릇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모새는 산란 직후부터 알을 품기 시작해서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제 새끼가 아닌 다른 새의 새끼를 정성스럽게 키우며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한편 때까치는 생태계 변화의 지표종이기도 하다. 때까치는 곤충, 소형 조류 및 개구리, 도마뱀 같은 양서파충류와 쥐, 지네, 지렁이 등을 먹이로 살아가고 있다. 상위 포식자인 때까치가 관찰되는 곳은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 준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으로 먹이 이용 상태에 따라 알의 크기가 변하는데 알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때까치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먹이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적인 때까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변화, 특히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때까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 다채로운 역할과 특성을 가진 독특한 새 중의 하나가 때까치인 듯하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산들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온 탄천과 주변 숲에서 때까치를 한번 찾아보며 가을맞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성남시의회는 7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로 안건 20건이 가결 및 채택됐다.

또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승인됐다.

남용삼 의원이 '성남문화재단 관련', 조정식 의원이 '2050 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제언', 김정희 의원이

'성남시 5개 민간 배달앱 과연 경쟁력과 현실성이 있는가?' 최미경 의원이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른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무사히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주말 격려차 다녀온 접종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과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생과 봉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때문에 기후 민감 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여름이 될 것이다. 폭염이 범정재난으로 지정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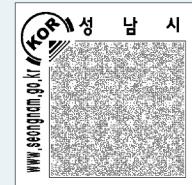
2021. 7. 15. 코로나19 극복 희망나눔 마스크 전달



2021. 7. 15. 코로나19 극복 희망나눔 손소독제 전달



2021. 7. 1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격려금 전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

공정한 의회

청렴한 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

성남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제정조례 1건이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열린 현장 마이크' 방송

8월 9일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열린 현장 마이크'가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 목소리를 듣고 궁금증에 대한 사항을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답변하는 프로그램으로, 박영애, 강상태, 김선임, 박호근, 강신철, 박경희, 정봉규, 김정희 의원이 참여했다.

윤창근 의장은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작은 이벤트라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듣는 것은 우리의 의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이웃의 다양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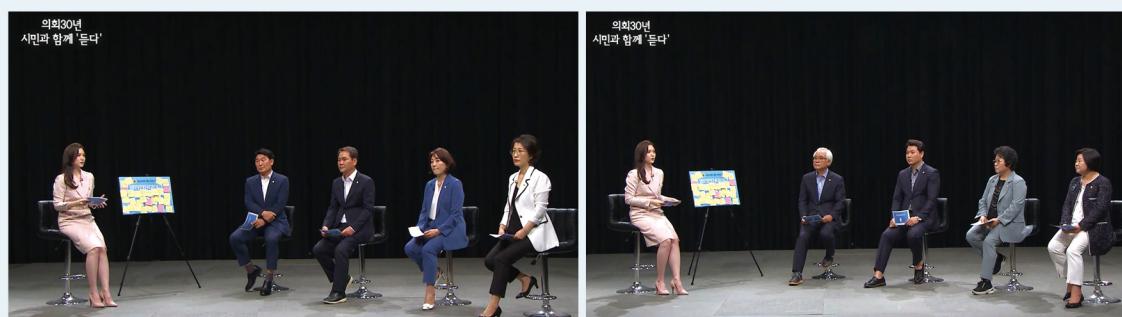
'찾아가는 열린 현장 마이크'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 ABN을 통해 방송됐으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 수 있다.

개시일	발의자	조례명
2021. 7. 12	이준배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1. 7. 19	박은미 의원 등 22명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7. 26	김영발 의원 등 13명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8. 2	최미경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9	강상태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7. 22. ~ 7. 23.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견학



2021. 8. 9. 생명 구한 거리의 천사, 성남시의회 표창



건강칼럼

‘슬기로운 갱년기’ 삶을 위해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혹시 참기 힘든 열감이나 불면증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신지요? 증상 두세 가지만이라도 체크하셨다면 당신은 갱년기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의 의미는?

- 여성은 초경을 시작하듯 가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갱년기’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갱년기’란 가임기에서부터 생식능력을 상실하는 폐경기 후로 이행되는 기간을 뜻하며 폐경 전후 평균 5~10년을 말합니다. 이 이행기가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약 45세로 난소기능이 점차 약해지므로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월경이 12개월 간 끊겼을 때 의학적으로 폐경이란 진단이 내려집니다. 폐경은 48~55세에 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51세입니다. 단 흡연자, 영양 결핍자, 가냘픈 마른 여성 또는 과거에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여성에서는 이 시기가 앞당겨져 조기폐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지 제공 성남시의료원

갱년기 때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 체크리스트의 증상들은 주로 체내 생식기 관련 여러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월경의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수면 장애와 열감 등의 여러 증상이 초래됩니다. 갱년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이 진단되기 전까지 난소기능은 불완전하고 호르몬 역동기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경이 몇 달간 없다가도 어느 시점에 무작위로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날 수 있어 예상치 못하는 임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신계획이 없으면 피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경이 시작된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만성 후유증에는 무엇이 있는가?

-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심장과 혈관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폐경여성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 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초기에 에스트로겐을 대체해 주므로 이러한 변화를 지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시기에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등 적극적인 생활 관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 골다공증**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는 폐경의 첫 5년간 골량의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약 7~8년이 지나면 골다공증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이미 생긴 골다공증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80대 이후 여성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골다공증 골절입니다.
- 비뇨생식기 위축성 변화** 질과 요도 점막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탄력을 유지하는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위축되고 건조해집니다. 질 점막이 위축돼 얇아지면 빽빽한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느끼고 성교 시 마찰로 통증과 불쾌감이 생깁니다. 요도와 방광 점막 조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 빈뇨, 갑작스런 요의와 긴박뇨, 웃을 때나 힘을 줄 때 요실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얇아진 점막으로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질염이나 방광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나도 혹시 갱년기인가?’

-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의 기복이 크다.
-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다.
- 월경을 몇 달 건너뛰었다. 월경량이 줄었다.
- 불쾌한 열감이 나고 얼굴이 붉어진다.
- 갑작스럽게 땀이 비 오듯 난다.
- 변을 참기 힘들고 질이 건조하다.
- 잠에서 자주 깨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다.
- 부부관계가 힘들고 성욕이 없다.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갱년기 증상은?

- 월경 주기와 양의 변화** 40대 이후로 나이 들면서 월경의 양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기가 평소보다 더 짧아지거나 더 늦어지거나 양이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월경량이 너무 많아져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거나 월경주기가 너무 불규칙해졌다면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자궁근종이나 용종 또는 난소 낭종을 진단받은 여성이라면 갱년기 때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질환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 열감과 생식비뇨기 증상(질건조증·가려움증·성교통)** 주로 난소 노화로 인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폐경되기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약 3명 중 2명꼴로 열감은 흔히 겪게 됩니다. 열감은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시작되는 시점이나 정도와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빈뇨나 요실금, 질건조증과 성교통이 심해지는데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비뇨생식기 점막이 위축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감정의 기복/ 수면 장애** 갱년기 때 수면 장애, 건망증, 우울감, 의욕상실, 공격성과 불안 증세를 흔히 겪습니다. 실제 갱년기 여성의 약 25~50%에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갱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만 생활과 가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자녀의 분기, 자기 정체성의 상실, 배우자와 문제)와 심리적 인자가 작용해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대수명은 늘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행복한가요?

-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평균 수명이 83.3세(여성 86.3세)로 높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 폐경 후 30여 년의 여생을 더 살게 됐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갱년기를 접하는 여성들은 초기부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고 폐경 후유증을 예방하는 치료법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 받고 ‘슬기롭게’ 노년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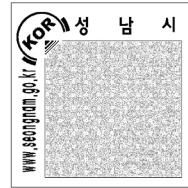
건강교실

자가구강건강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한
야! 너두! 건강한 치아 만들 수 있어!

수정구보건소는 성남시 2002년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한 치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02년생 이상 성남시민, 성남 소재 직장인 및 학생 중 인스타그램 가능한 사람이며, 신청일은 8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청은 <http://naver.me/GC2in3XB> 및 유선으로 가능하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하는 인증사진을 ‘인스타 피드’에 【@subo_ddon @subo_ss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 #구강습관도전 #야너두건치만들수있어】 태그를 걸어 10일 동안 인증하면 구강관리용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health/>)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구강보건실) 031-729-3858





장서각 산책

조선시대 전염병과 전몰처(戰歿處)



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1670년(경술년, 현종 11)과 1671년(신해년, 현종 12)에 발생했던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은 임란과 호란의 두 전쟁만큼이나 참혹했다. 연이은 기운 저하로 한발, 흥수, 풍해, 여역, 황해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닥쳐 1671년 한 해 동안 사망자수가 8만 8,150명이었다. 이 숫자는 중앙에 보고된 것만을 합계한 것이므로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거의 백만에 이르렀다. 당시 재난의 극단이 전염병이었다. 몇 해 전부터 기근으로 인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유행한 여역은 치명적이었다.

조선시대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거행했던 여제(厲祭)는 여귀(厲鬼)를 위한 제사였다. 여귀는 사람에게 흉포를 부리는 ‘강포한 귀신’이다. 이들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비명횡사(非命橫死)한 원혼이다. 이를 무사귀신(無祀鬼神)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강포함이 본래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운한 처지’에서 비롯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사는 숭배와 감사라기보다 ‘기억’과 ‘위로’의 행동양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의 한양을 비롯해 각 군현에는 여단이 있어서 일 년에 3번 무사귀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다. 경기 광주부의 경우 여단은 남한산성의 북문 내에 있었다. 정기적 제향 외에도 전염병이 돌 때면 전염병이 그들의 빌미에 의한 것이라 여겨 여제를 지냈다.

1671년 4월에 정부 서울과 지방에 여제를 실행했다. 당연히 여단에서 거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여제의 장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중정(重訂) 남한지』 표지와 단묘(壇廟)의 내용

당시 여제의 장소는 한양 북교의 여단을 비롯해 민중단, 험천, 쌍령, 금화, 토산, 강화, 진주, 남원, 금산, 달천, 상주, 원주, 울산 등의 14곳이다. 이곳이 여제의 제단으로 선정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한양 북교 여단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은 모두 전쟁과 관련된 전몰처(戰歿處)였다.

민중단은 임란 때 조선에 왔다가 전몰한 명나라 군사를 위로하려고 만든 제단이었다. 진주, 남원, 금산, 달천, 상주, 원주, 울산은 임란 때 주요 격전지였으며, 특히 우리 병사들이 패전해 많이 죽었던 곳이다. 반면

험천, 쌍령, 금화, 토산, 강화는 병자호란 때 우리 병사들이 패전했던 장소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지역인 험천은 병자호란

때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남한산성에 피신한 임금을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청군에게 패했던 곳이다. 당시 전투에서 죽은 시체가 험천에 쌓이고 그 피가 수십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광주의 쌍령 역시 경상도에서 상경한 근왕군이 청군에 패배한 장소였다. 그 외 지역 역시 우리의 수많은 병사들이 패전으로 죽었던 곳이다. 이러한 전몰처들은 전쟁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그러나 가뭄과 여역의 재난은 다시 이들을 소환했다. 이후 편찬된 『광주부읍지』나 『중정 남한지』에서도 험천과 쌍령의 기우제단을 그 유래와 함께 소개했다.

전염병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여역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접촉을 멀리하는 피방이라 여겼다. 몸이 고립될수록 기억은 더 왕성해지는 걸까? 전염병은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냈다. 패전해 버려졌던 가련한 시신과 그들의 영혼이었다. 누구의 시신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무정형의 슬픔이 전염병으로 인해 다시 기억된다. 그들의 영혼을 불러내어 산 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폭발할 것 같은 곤궁의 시기에 타자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서로를 치유했다.

책 속에 흐르는 선율

무라카미 하루키『기사단장 죽이기』 &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취재 조윤수 기자 chyooonsoo@gmail.com

뛰어난 이야기꾼인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은 간결한 문체, 가독성 높은 문장력,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오가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줄거리가 특징이다. 흥미롭게도 글쓰기에 있어서 문체를 중시하는 하루키의 작품을 가장 하루키답게 만드는 또 한 요소는 음악이다. 한때 재즈바 운영자이기도 했던 하루키는 그의 모든 작품에 재즈, 팝, 오페라, 클래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집어넣어 작품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특히 그의 작품 속 클래식 음악은 특정 장면 분위기나 인물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를 뛰어넘어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소재로 쓰이거나 작품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기사단장 죽이기』(문학동네, 2017)의 경우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가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며 오페라 1막의 한 장면은 소설의 제목이 된다.

오페라의 주인공 ‘돈 조반니’는 난봉꾼의 대명사인 ‘돈

후안’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1막 시작과 함께 여주인공 ‘돈나 앤나’를 희롱하던 돈 조반니는 딸을 보호하려는 기사장과의 결투에서 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다. 소설의 제목이자 소설에 등장하는 그림인 <기사단장 죽이기>는 바로 이 장면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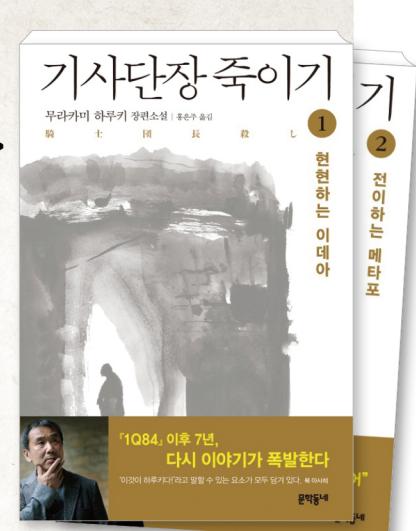
소설이 차용한 또 다른 부분은 오페라 2막 끝부분에 등장한다. 돈 조반니가 장난스런 마음으로 무덤에 세워진 기사 석상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장면과 오페라 마지막, 기사장의 유령이 나타나 돈 조반니를 지하로 끌고 가는 장면이다.

소설 속 주인공이 아내와 헤어진 후 살게 된 집에서 발견한 그림으로 시작해, 집 뒤틀 둘무덤 아래에서 들리는 방울소리, 둘무덤 아래 구덩이에서 나온 기사단장, 기사단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웃집 남자 ‘멘시키’, 그리고 지하 동굴을 거쳐 구덩이로 떨어진 주인공이 임신한 아내와 재결합하기까지, 현실의 이야기에서 ‘이데아’, ‘메타포’의 세계를 거쳐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

는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는 모차르트 오페라 외에도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일본 설화 문학 속 영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 채로 관 속에 들어간 승려 이야기, 하루키가 번역한 작품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오마주, 독일 나치와 얹힌 역사, 중일 전쟁, 난징대학살,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까지, 좀처럼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작가가 작품을 빌어 던지는 메시지가 그의 문체와는 달리 꽤 묵직하다.

* 유튜브에 ‘비전성남 책속선율 기사단장죽이기’를 입력하면 관련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책 『기사단장 죽이기』는 복정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성남시 도서관에서 보유 중이다.



유튜브 연결



2021년 9월 교육 프로그램



2021년 9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참여방법				
새친구 동고비	토요일 14:00~15:00	7세 이상 가족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프로그램. 필드스코프와 쌍안경을 이용해 탐조를 통해 조류의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9월: 새의 부리와 먹이)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해피 에코데이	9. 29(수) 17:00~19:00	전체	매월 환경기념일' 주제에 맞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체험키트 배포 후, 집에서 함께하는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9월: 10월 18일 산의 날)					
에코복설룡	9. 18(토) 13:00~15:00	판교 인근 직장인 및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의 환경 도서를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9월: 『나는 풍으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료)					
우리 씨앗 나눔 & 텃밭 교육	9. 25(토) 오전 10:00 오후 13:00	5세 이상 가족	우리나라 토종 채소 씨앗을 나눔하고, 씨앗 심기와 관련된 텃밭 활동을 진행하는 원예 프로그램(9월: 나눔 씨앗: 허브, 메리골드 등)					
에코 키즈카페	일요일 10:00~10:5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어린이와 보호자가 짹을 이뤄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9월: 가을에 만나는 숲 친구들)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3:50	5~7세 가족	온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고, 놀이와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자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9월: 날아라 잠자리)					
에코 어스	토요일 15:30~17:00	초등학생과 가족	생활 속 우리 몸에 유해한 환경물질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친환경 용품들로 생활의 친환경 지수를 높여보세요.(9월: 미세플라스틱 없는 치약 만들기)					
환경아 놀자!	화요일 10:00~11:30	6~7세 단체	그림책과 체험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배우는 유아 단체 프로그램(9월: 북극곰에게도 냉장고가 필요해?)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숲놀이 학교	화~금요일 10:00~10:5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숲놀이 프로그램(9월: 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잠자리) *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 신청 시, 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 꼭 확인 바람.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 10:30~12:00	5세 이상 가족	직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9월: 수건돌리기, 고무줄놀이, 띡지접기)					
나와라 동화 꾸러미	9월 14일(화), 9월 28일(화) 11:00~11:50	4·5세 유아기관 단체	<table border="0"> <tr> <td>9월 14일</td> <td>- 거미는 다른곤충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봐요 - 원숭이 임금의 이야기를 만나봐요</td> </tr> <tr> <td>9월 28일</td> <td>- 커다란 사과는 누구의 것일까 - 동물들의 좋은 친구 그루터기</td> </tr> </table>	9월 14일	- 거미는 다른곤충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봐요 - 원숭이 임금의 이야기를 만나봐요	9월 28일	- 커다란 사과는 누구의 것일까 - 동물들의 좋은 친구 그루터기	
9월 14일	- 거미는 다른곤충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봐요 - 원숭이 임금의 이야기를 만나봐요							
9월 28일	- 커다란 사과는 누구의 것일까 - 동물들의 좋은 친구 그루터기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교육과 <http://ppark.seongnam.go.kr>, 031-604-9562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초등단체	9월: 곤충이랑 나랑
에코키즈 B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맹산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3분기: 나의 보물상자
가족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초등가족	2차시(7~12월). 매달 있는 24절기를 배워보고 절기에 맞는 활동 체험
절기 따라 생태원 가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초등가족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아외학습장을 둘러보며 미션을 해결해보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셀프생태탐사	상시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목공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목공	비 대면	가족	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설명책자를 보고 완성해보는 프로그램(내 마음대로 선반)
꼼지락 환경이야기	가족	가족	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로 교구꾸러미 배부 후 가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환경활동에 참여해보는 프로그램(양말목 공예-컵홀더만들기)
환경이 담긴 전통문화	가족	가족	영상으로 배우는 셀프 텃밭 가꾸기, 가족이 생태원 텃밭을 분야 받아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참여후기도 올려보는 프로그램(한뼘농장이야기-가을)
엄마의 지구사용설명서	성인	성인	자연물과 자원순환으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투호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끼위를 즐겨보는 프로그램(한끼위야 을해도 집에서 놀자~)
전시실 밖으로 나온 전시실	가족	가족	'소소한 제로웨이스트'로 가정에서부터 제로웨이스트 실천방법을 링크를 통해 유튜브로 배우기(3회차 시- 1차시 신청하면 2·3 차시 모두 참여 가능)
나무 이야기	가족	가족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과 생태원을 둘러보며 미션을 해결하고 자연물을 이용해 곤충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곤충이야기)
특별 프로그램	매일매일 자원순환의 날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p>시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 생활 속 자원순환을 인증샷 찍은 후 [홈페이지-커뮤니티- 참여후기]에 남겨 참여하기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관람	상시	전체	2가족 10명 이내로 입장 제한(개구리·새·곤충 이야기 둘러보기)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단체	도슨트, 환경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상시	전체	생태원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검색 후 구독해 다양한 영상 시청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관람객은 생태원 건물 입장 시 발열체크하고 방문객 일일점검표 작성하거나 QR인증(전자출입명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개설 및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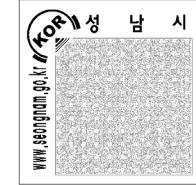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10003, 031-702-1192

2021년 9월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청년 지원센터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연중	온라인	청년 (만 19~34세)	센터 소개, 프로그램, 청년info, 센터소식, 멤버십	홈페이지 www.snspring.or.kr	070-4908-2090~ 2094
	청춘상담소 '비건다이어'	9. 3(금) 19:00			- 몸건강과 마음건강을 결합한 성남 청년 치유·힐링 프로그램 - 센터 내방해 비건키트 수령 후,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 참여		
	독서모임 '공정하다는 착각'	9. 14(화) 19:00			한 달에 한번, 매달 선정도서를 통한 사회적·질문 독서토론		
	환경모임 '소비와 생산'	9. 28(화) 19:00			Y-SDGs 각 주제에 맞는 자식·정보와 생활 속 실천과제		
중원 청소년수련관	와락(樂) 청소년상담실	연중	수련관 상담실, 학교 등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개인(대면·화상)상담, 미술치료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업종단예방(학업부적응 등) 상담 및 진로체험활동	비용·예약 유선문의	031-729-9360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 어울림마당	9. 11(토) 13:00~14:30	온라인 (성남시 청소년 재단 유튜브)	청소년 및 지역주민 (300명)	청소년동아리 공연, 영역별 체험활동 운영	온라인 접수 예정	031-729-9435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안전망 멘토 모집	연중	수련관 및 유관기관	성인 (직업분야 실무자)	- 청少年 학습·진로 멘토링, 청少年전화1388 홍보 등 - 위촉동의서 수련관 홈페이지(http://www.tenten21.or.kr/) 공지사항 참조	이메일 접수	031-729-9560
	화상회의실 & 스마트워크 부스 공유공간 개방	수련관 1층	수련관 1층	청소년 기업 시민 등	온라인 화상회의실, 독립부스, 메이커장비(3D 프린터 및 레이저커퍼터기 등) 공간개방	메이크올(www.makeall.com) 회원가입 후 예약	031-729-9551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9~11월 (매주 화·목)	수련관 및 금토산 일대	성인	- 제5기 생태관련 기본·심화과정 총 24강(초본, 목본, 생태미술, 조류, 생태숲놀이 등) - 수료 후 자원활동가 과정(1년)을 거쳐 수련관 생태안내자 강사로 활동(참가비 1인 10만 원)	수련관 1층 접수처	031-729-9636
분당야탑 청소년수련관	제11회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9. 4(토) ~ 10. 13(수)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개인 또는 팀 (10명 이내)	- 공개되는 코로나 전·후 데이터 자료집과 영상을 보고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제안 빅데이터 자료집 및 영상 공개: 9. 1(수) - 사업설명회: 9. 4(토) 13:00~14:00 수련관 3층 공연장 - 제안서 접수: 9. 13(월) ~ 10. 13(수)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031-729-9831
성남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접수	상시모집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만 9~24세)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교복지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및 72% 이내 해당 청소년 * 자세한 복지지원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유선문의 후 공문접수	031-729-9118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연중	청소년 자립플랫폼 일하루(꿈드림)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5~24세)	- 자립 계획 수립 후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 각 수당별 연 1인 1회 성남시상상품권으로 - 자립훈련 참여수당 20만 원 또는 25만 원 지원 - 자립 계획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시 20만 원 지원	유선문의	031-729-9181
임시 수정 청소년수련관	온&온 학습지원사업 시즌2	8~12월	수련관	청소년 (초등 3~6)	초등학생 돌봄프로그램(실내공동체놀이, 토탈공예특강, 학습멘토링) ※ 참가비 무료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유선전화	031-729-9231~3
	초·중등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모집	연중	청소년 (초등 4~6, 중등 1~3)	교과학습(수학, 영어, 역사논술, 학습멘토 등), 역량강화(미술, 체육, 연극, 동아리활동 등), 생활지원(급식, 상담, 등하원지도 등) ※ 교재비 외 전액 무료	유선문의 후 방문접수	초등 031-729-9244~6 중등 031-729-9244~6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



성남시립합창단 9월 기획연주회 '직장인을 위한 위로송- 셀러리맨 칸타타'



• 관람료 전석 5천 원

• 예매방법 - 성남시립예술단 홈페이지(art.seongnam.go.kr)

-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www snart.or.kr)
- 인터파크 티켓 1554-8117(ticket.interpark.com)

성남시립합창단 031-729-4807

중탑실버대학 가을학기 모집

•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24일(금)

• 접수기간 9월 6일(월)부터 • 대상 50세 이상 성남시민 누구나

• 장소 중탑종합사회복지관(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소재)

• 내용 취미여가강좌(하모니카 외 9개 과목), 건강관리강좌(관절체조 외 2과목), 평생교육강좌(영어회화기초 외 4개 과목)

*온라인(네이버 밴드)을 통해 수업 진행

중탑실버복지관 031-701-2988

청소년 미디어 스쿨 참가자 모집

• 기간 9~11월 중(2시간씩 총 4회기)

• 장소 중탑종합사회복지관(분당구 야탑3동 소재)

• 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총 20명

• 내용 미디어 제작 실습(시나리오 작성, 촬영 및 편집)

• 기타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단체 신청 가능

중탑종합사회복지관 031-706-0167, www.jtwelfare.or.kr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1-0041, 2021.6.23.)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대출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금리 40년 만기 선택가능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	2.70%	2.80%	2.90%	2.95%	3.00%
아김e-보금자리론	2.60%	2.70%	2.80%	2.85%	2.90%

2021.7.1일 기준

* 대출계약과 저당권 설정계약은 u-보금자리론은 은행을 방문하여 체결하고, 아김e-보금자리론은 공동인증서 등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체결합니다.
- 아김e-보금자리론 취급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www.hf.go.kr | 1688-8114

2021년 한가위맞이 '서로 사랑 나누기' 참여하세요

- 추진기간 8월 23일(월) ~ 9월 17일(금)
- 참여대상 일반시민, 기업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 지원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및 저소득층 지원

• 지원창구

비고	담당부서	팀명	연락처
성남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31-729-2841~3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729-5550~2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729-6550~3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729-8050~3
동 행정복지센터(50)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청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 및 생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의 자세한 산정기준: QR코드에서 확인



구분	요건 심사형	I 유형		II 유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지원 대상	연령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무관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	
	소득 구직 촉진 수당		○	X	○
지원 내용	자원 취업활동 비용	X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QR코드에 연결된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마금역 4번 출구), 국민취업지원팀 031-739-3150, 3179, 3195

성남시 1인가구를 위한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은 1인 세대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삶생활'이라는 관심사 공유를 통해 주체적인 마음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푸드테라피 #자조모임 #공유부엌 #하얀마을복지회관

운영기간 2021. 09. 17 ~ 12. 10
운영시간 매주 금曜일 오후 3시30분 ~ 5시30분
모집대상 1인가구 중, 장년층 6명 (50~60대 성별무관)
신청방법 사무실 내방 접수 문의 031-718-2779 배성우 사회복지사

건강한 10가지 메뉴 익히기
자조모임 형성 및 나눔활동
요리로 힐링하자 '푸드테라피'
쾌적하고 넓은 공간
#부록은 진행하는 프로그램
8월 13일 ~ 9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

본 프로그램은 총 13회기(요리수업 10회기, 자조모임 3회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중 13회기 모두 참여 가능하신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시 비대면(화상수업)으로 진행합니다.

2021.8.9. 보도참고자료

8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 접종 예정자는 접종간격 6주 이내로 한시적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8월 16일(월)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6주 간격으로 접종간격이 조정되며,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고3 및 고교직원(3주) 기타 대입수험생(수생, 학교청소년 중 수험생 등)(4주)의 경우에는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여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보육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 입양장애인의 경우에도 입대일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간격 유지

일괄 변경된 2차 접종일정은 금주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50대 이하 연령층의 일반 국민 접종을 인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mRNA 백신의 2차접종 간격을 조정한 것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백신 수급과 접종관리 등 세부사항을 세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7.22)

-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은 화이자 백신 3주·모더나 백신 4주이다.
백신 공급 상황, 의료기관 접종여건, 피접종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질병관리청

2021년도 9~10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수정구청	스마트폰 이미지 & 동영상 편집(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10. 4 ~ 10. 29	월~금 10:00~12:00	30	- 9. 15(수) 09:00 ~ 9. 30(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조기미감 가능) - 성남시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
	인터넷 활용(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월~금 14:00~16:00	30	- 문의: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031-729-5072)
중원구청	한글2018(온라인 교육) 액셀2016(온라인 교육) ITQ(파워포인트)(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10. 4 ~ 10. 29 11. 1 ~ 11. 26	월~금 10:00~12:00 월~금 14:00~16:00 월~금 10:00~12:00 월~금 14:00~16:00	30 30 30 30	- 9. 13(월) 09:00~ 인터넷 선착순 접수(조기미감 가능) - 성남시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 - 문의: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031-729-6074)
	파워디렉토 UCC 등영상 편집 고속도기(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화~금 10:00~12:00	13	- 8. 17(화) 10: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성남시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
중원도서관	워드프로세서 2기 실기 (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10. 5 ~ 10. 26	화~목 10:00~12:00	24	- 9. 14(화) 10:00 ~ 9. 16(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조기미감 가능)
	피슬러를 이용한 포토샵 디자인(온라인 교육)	성남시민		화~목 19:00~21:00	20	- 성남시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 - 문의: 평생학습지원팀(031-724-0672)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온라인 교육)	windows10 & 인터넷 & 한글 컴퓨터 기초 멀티미디어 ITQ 한글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포토샵(GTO자격증반)	장애인 및 가족, 65세 이상 성남시민	8. 26 ~ 9. 25	월~금 09:20~10:40 월~금 10:40~12:00 월~금 14:20~15:40 월~금 15:40~17:00 화~목 10:00~12:00 화~목 12:00~14:00	20 20 20 20 20 20	수시모집 010-5184-6884(031-732-6884) * 과목·시간 변경 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강의 진행 시 별도 연락 예정

*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729-4634, 수정도서관 724-0627, 중원도서관 752-3913, 수정구청 729-5072, 중원구청 729-6071, 분당구청 729-7071

도심의 번잡함을 떨치고 여유를 찾다

은행1·2동의 허파와 같은 은행식물원·은행근린공원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01



02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쉼 없이 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꽃이나 나무를 뿌리 뻗을 자리 없이 촘촘하게 심으면 식물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활기는 휴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열정과 활기를 위해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은행동에서는 그 역할을 은행식물원과 은행근린공원이 하는 것 같다. 은행식물원은 양묘장과 폐기된 배수지를 재활용해 만든 곳이다.

아스팔트에 팽볕이 쏟아지는 한낮. 식물원을 찾았다. 식물원에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똑같은 햇볕이 내리고 있는데도 한낮의 무더위가 가볍게 느껴졌다. 배롱나무에서 떨어진 꽃이 바닥에 원을 그리고, 능소화의 진한 주황빛이 여름에 생기를 더했다. 탈피를 마친 매미는 꽁무니를 흔들어대며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식물마다 이름표 하나씩 달고서 “나는 섬기린초, 돌나물과에 속해요”, “백합과, 무늬옥잠화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이름표엔 식물의 여름이 담겨 있고 가을의 모습이 적혀 있었다.

식물원 내 유리온실 공사가 한창이다. 9월 말 문을 열 예정인 유리온실에는 제주도 기온 정도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자리 잡는다. 온실은 겨울에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 학습장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07



05



06



09 10



08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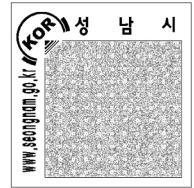
식물원을 나서 맞은편 계단을 오르면 은행근린공원이다. 계단에 다 오르자 공원 전경보다 경단산 정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눈에 가리는 것 없이 전망이 좋다. 공원은 햇볕과 그늘과 바람이 위치에 따라 넉넉하게 펼쳐져 있는 풍경이다. 운동시설엔 햇볕이 내려 활기를 불어넣고, 그늘엔 편안한 휴식을 위한 바람길이 통해 있다.

공원 내 운동장 트랙을 도는 사람들, 그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 “여기가 왜 좋으세요?” 하고 물으니 “나무가 많아 그늘이 지고 시원해요. 비 오는 날 비 가릴 수 있게 정자가 하나 있으면 더 좋겠어” 하신다. 에어컨의 찬 공기와 다른 선선함이 그늘을 부드럽게 오가고 있었다.

나무기둥에 달린 시계가 눈길을 끌었다. 시계의 숫자판이 틀에 겨우겨우 붙어 있었다. 시간이 맞나? 하고 손목시계를 보니 용케도 시간이 맞는다. 무더위에도 끗끗하게 트랙을 도는 사람들처럼 낡은 시계 또한 열심히 돌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은행근린공원에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코트 등 여러 체육 시설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장과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도 이곳마저 없다면 어디서 코로나19의 답답함을 달랠 수 있을까.

은행1동과 2동 마을 뒤편에 있는 식물원과 공원을 거닐다가 문득, ‘우리가 앞만 보고 산다면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가끔은 뒤도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마을 뒤편에 활기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것처럼 사는 동안 가끔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만날 수 있을 여유로움에 대해. 꽃과 나무가 어울려 만든 산책로의 그늘이 주는 시간에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다.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제비

방연희 수정구 태평동

6월 어느 날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다. 큰방 창문 앞에 여기저기 어지럽게 꼬여 있는 전선 줄 위에 새벽이면 제비들이 모여와서 악을 쓰며 요란하게 울어댄다.

어릴 적 우리 시골집 처마 밑에 매년 제비가 집을 지어 새끼를 키우던 그 추억 때문에 난 그 소리가 싫지 않고 너무 정겨워 혹여라도 내가 창문 여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갈까 봐 방충망 앞에서 턱 괴고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기만 한다.

어떤 날은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니 딸아이가 “시끄러워!” 하고 소리치면 막귀를 알아듣는 양 한참을 조용하게 있다가 약 올리듯이 더 크게 소리 내어 울어댄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와 제비가 주고받는 짓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웃고 마는데, 이것조차 제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혹시 제비가 내게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 같은 행운을 기대해도 될까? 가슴 설레게 희망해본다.

어젯밤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은 하루 종일 제비가 보이질 않는다. 혹시 가버린 건 아닌지.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날 것은 알고 있지만, 어제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여준 귀여운 몸짓이었나 생각하니 아쉽고 많이 서운하다. 제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내 마음의 편지를 작은 속삭임으로 날려 보내본다.

제비야, 내년에도 잊지 말고 우리 집으로 꼭 나를 찾아오렴. 그리고 올 땐 입에 큰 박씨 하나 물고 오렴.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없어도 그 박씨는 꼭 창문 앞에 놓고 가려드나.

새벽녘 탄천 산책의 즐거움

이순필 분당구 금곡동

아침저녁으로 일상을 제법 생기나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우리 부부도 그동안 다소 게을리했던 새벽 탄천걷기를 정상화(?)하려고 한다. 우리 부부가 인근 탄천을 산책한지도 어느덧 이십여 년. 그만큼 새벽 탄천 산책은 우리 부부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큰 대문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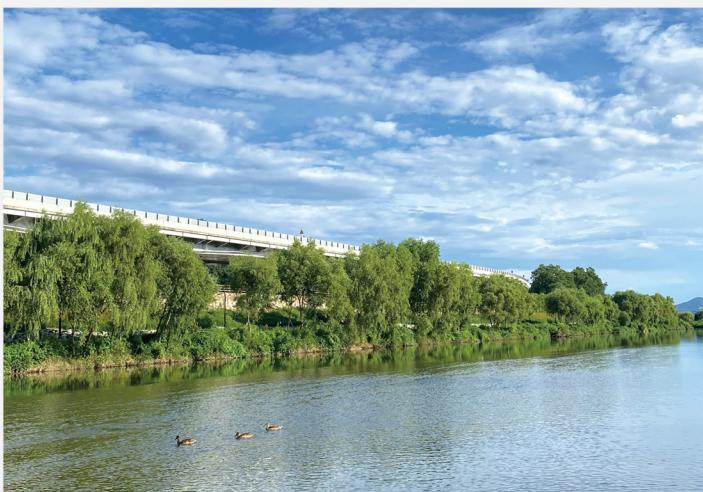
우리 부부는 오늘도 새벽에 탄천 산책에 나선다. 걷기 좋게 간편한 복장 차림이다. 신선한 새벽공기가 여느 때처럼 우리를 맞는다. 새벽시차에 따라 탄천을 찾아드는 시민들의 발걸음 속도도 각각 다르다. 낮시간에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이 온 몸을 감싼다. 우리는 횡단로를 조심스럽게 건너서 탄천 출발점으로 이동한다. 어느새 건강을 챙기려는 인근 주민들, 남녀노소가 형형색색의 차림으로 산책로를 서서히 메운다. 지금은 새벽 5시 조금 넘는 시간대가 산책하기에 알맞은 것 같다. 밤새도록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의 맑은 물소리, 수양버들 가지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울어주는 까치 소리, 새벽하늘을 어루만지면서 멋진 풍경화를 그리며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떼, 날쌔게 자전거로 질주하는 젊은이들, 수다를 떨면서 저만치 걸어가는 오십 대 아낙네들, 완벽한 복장으로 달려가는 삼십 대 부부, 제법 빠른 걸음으로 산책객을 제치면서 간편복을 휘날리며 저만치 앞서가는 삼십 대.

새벽 탄천 산책길에 나서면 눈앞에 전개되는 시민들의 건강한 모습이다. 우리도 탄천의 주변 풍광을 음미하면서 함께 걷는다.

새벽 탄천 산책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멋진 건강수호자며, 탄천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건강증진의 실천도장이다. 서서히 가을이 다가온다. 새벽 산책객의 옷차림부터 마음까지도 변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건강증진의 봉사를 톡톡히 담당하는 새벽의 탄천, 그리고 산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photo

맑은 여름날, 탄천



요즘처럼 실내에서 운동하기 불안한 때 탄천은 운동하기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더위가 조금 수그러드는 오후에 나오면 맑고 푸르른 청량한 풍경에 절로 힐링이 되네요.

이지은 수정구 수진동

노을과 아이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 운중천에서 딸아이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놀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짧은 노을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박광호 분당구 이매동



이제 곧 추석, 고향 갈 준비하던 그때의 의상실 풍경

애리의상실(단대동), 이애리 대표에게 듣다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01 작업 중인 이애리 대표 02 60년대부터 사용해온 애리의상실 상표



03 오랫동안 함께해온 재봉틀 04 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05 애리의상실 전경
06 옷감 07 주문제작한 여름 재킷 08 옷감의 색에 맞춰 바느질 될 실

이 지역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



“아직 옷이 안 됐어요?” 마무리되지 않은 옷을 기다리며 여공은 애가 타서 울기도 했다. 의상실에 주문한 옷이 완성되는 날이 고향 가는 날이었다. 1970~80년대 성남 제1공단에는 삼영전자, 풍국산업 등을 비롯한 여러 공장에 2천 명이 넘는 직공들이 있었다.

고향에 내려가는 여공들에게 잘 차려입은 의복은 “객지에서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란 안부의 표시였다. 그렇다 보니 명절에 입고 갈 옷이 제때 완성되지 않으면 옷이 완성될 때까지 의상실 앞에 앉아 기다려야만 했다. 의상실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새워 옷을 만들었다.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옷을 입고 갔다가 돌아와서 마저 재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쌀을 빻기 위해 떡방앗간 앞에서 줄을 서고 자식은 의상실 앞에서 줄을 섰다.

성남에 제1공단이 세워지면서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300여 곳 의상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기성복을 파는 가게도 있었지만 블라우스, 바지, 치마 같은 평상복도 체형에 맞게끔 맞춰 입는 사람들이 많던 때다. 선물로 옷감을 보내는 것도 유행이었고, 결혼 예단에 옷감이 포함되던 시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 나갔던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 사오던 독일제 비로드는 고급 옷감으로 인기가 좋았다. 선물이나 예단으로 들어온 옷감은 의상실을 통해 나팔바지가 되고, 원피스, 튜피스, 쓰리피스 양장으로 거듭났다. 좀 산다 하는 집안 혼례엔 예복으로 오버코트, 바바리코트, 정장을 사계절에 맞춰 준비했다고 한다.

“복장에서 개성이 넘쳐나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 옷을 만든 원단으로 가방, 모자, 부츠까지 깔(?) 맞춤으로 만들어 입으면 최고의 멋쟁이였다. 기성복에 비해 고개를 맞춤복을 입기 위해 계를 조작해 돌아가며 맞춰 입기도 했고, 고객 중엔 3개월, 4개월… 월부(할부)로 나눠 내기로 하고 옷을 맞춰 입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제 거리에서 의상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의상실은 기성복 매장에 밀려났다. 빠르게 유행을 따라잡는 패스트 패션의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손님들은 의상실보다 기성복 매장을 찾은 지 오래다.

“60년대 후반부터 성남 제1공단 근처에서 의상실과 함께 웨딩ドレス숍을 운영했다”는 애리의상실 이애리 대표의 기억 속, 50여 년 전부터 흘러온 의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주 오래된 명작 한 편을 감상하는 듯하다. 50년 세월 중 언제쯤 지어진 옷일까, 의상실 개점 당시부터 사용해 왔다는 애리의상실 상표가 달린 옷을 들고 오는 손님이 있다. 반갑고, 고맙다.

이 대표는 “지금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 삼아 옷을 입는다”고 한다. 가게 앞 화단에 꽃과 식물을 가꾸며 한 달에 한두 작품 정도 만들고 있다. 의상실을 찾는 손님은 옷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옷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들며 의(衣)를 먹는 것에 앞서 이야기한다. 어째서 식(食)이 아닌 의(衣)를 먼저 말했을까 새삼 의문이 들었다. 이 대표에게 옷을 만드는 일이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는 귀함의 표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